

중앙SUNDAY
MAGAZINE

April 8, 2007 . No.4 . sunday.joins.com.

봄 속에
봄 너머에
삶의 통풍 창

CULTURE

伊감독 파줄리니와 그림 4p 男배우 트로이카-최민식 · 송강호 · 설경구 10p

LIFE STYLE

샤넬의 명품 공방 24p 놀라워라, 콩의 힘 28p

한국 현대 가구, ‘가구의 전당’ 입장 팡파르~

‘가구 디자인의 전당’이라 불리는 ‘비트라 디자인 미술관(Vitra Design Museum)’이 최병훈 홍익대 교수의 가구 디자인 두 점을 소장품으로 선정했다. 한국인 디자이너 작품이 ‘비트라’의 수장 목록에 오르기는 처음. 한국 예술 가구(art furniture)가 이제 세계 디자인계의 주목을 받는다. 글 정재숙 기자



태초의 잔상 05-222
단풍나무에 옷칠, 화강암, 2005

암흑 속에서 검은빛이 반짝인다. 동그라미 안을 파고든 타원형 위에 돌 하나가 파격이다. 단풍나무에 옷칠을 하고 화강암을 얹었다. 제목 ‘태초의 잔상(afterimage)’은 이 사발(bowl)이 지닌 이미지를 시처럼 표현한다. 이 우묵한 사발에 담긴 음식을 먹는 이는 저절로 사념에 잠길 듯하다. 거친 것과 매끈함이 대비되면서 원시와 문명, 자연과 인공의 느낌이 어우러진다.

최병훈(55) 홍익대 목조형학과 교수 겸 박물관장이 디자인한 ‘태초의 잔상’이 이제 세계 디자인계의 주목을 받는다. ‘가구 디자인의 전당’이라 불리는 ‘비트라 디자인 미술관(Vitra Design Museum·이하 비트라)’이 최근 최 교수의 ‘태초의 잔상’ 두 점을 소장품으로 선정했다.

한국인 디자이너 작품이 ‘비트라’의 수장 목록에 오르기는 처음이다. 사발과 함께 ‘비트라’에 들어간 예술 가구(art furniture)는 의자다. 계곡에 물

흐르듯 나무를 사람 몸에 맞게 구부린 뒤 묵직한 돌을 놓은 의자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을 보여준다.

‘비트라’는 가구제조사인 비트라가 1989년 스위스 바젤 근교에 세운 세계적인 산업디자인 전문 미술관. 스타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각목 쌓기 스타일의 건축물로도 이름났다. 20, 21세기 산업디자인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모으는 컬렉션의 네 가지 기준은 엄격하다. 첫째 재료나 기술발전을 보인 가구, 둘째 공학과 구조적인 면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온 제품, 셋째 공업 측면에서 경제성을 극대화한 디자인, 넷째 형태·색상·패턴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예술성을 지닌 작품일 것 등이다. 현재 소장품은 6000여 종. 가구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자기 작품이 소장되길 원하는 곳이다.

지난달 초 최 교수가 일하는 작업실에 찾아와 소장 작품을 직접 고른 이는 알렉산더 폰 페게작 ‘비트라’ 관장이다. 그는 ‘한국 전통기법인 옷칠과 자연 재료인 화강암 등 서양인이 지니지 못한

새로운 물성을 보여준 데다 가구의 혁신성이라는 보편 가치를 지닌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 자연의 감성과 국제적인 스타일이 잘 조화된 디자인이라는 것이다.

의자는 ‘연결(connection)’이 생명인 가구다. 사람과 사람, 소재와 소재가 어떻게 깔끔하게 연결되느냐에 따라 질이 결정된다. 이 점에서 최 교수의 자는 좋은 이음매를 창조했다. 훌륭한 의자는 꼭 사람 얼굴을 닮았다는 말이 있는데 ‘태초의 잔상’ 또한 사람 얼굴을 연상시킨다. 의자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돌을 주인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점도 이 의자의 개성 또는 얼굴을 자유롭게 만드는 핵심 요소다.

의자는 인류 곁에서 가장 오래 함께 해온 가구 중 가구다. 의자가 없는 현대 생활은 상상할 수 없다. 의자 역사에 새

이름을 새긴 최병훈 교수의 ‘태초의 잔상’이 이제 세계 디자인계에 한국 디자인의 이름을 높인다.

의자 디자인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온 시점을 19세기 중반으로 본다면 현대 의자 디자인의 역사는 150년 남짓. 그보다 더 짧은 의자 디자인의 역사를 지닌 한국이 장인 정신을 뽐낼 때가 왔다.



태초의 잔상 07-244
월넛·너도밤나무·멜라민 수지·검정 화강암, 2007



최병훈 작가 인터뷰 “10년 품었던 꿈을 이뤘으니 기쁘고 고맙다”

한국 가구의 ‘비트라’ 입성을 이룬 최병훈(사진 앞) 교수는 “한 시대의 가구 역사를 기록하는 컬렉션에 이름을 올렸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십여 년 전 처음 이 미술관에 다녀온 뒤 서너 차례 들를 때마다 ‘언젠가 내 작품도 여기에...’를 마음속으로 다짐해 온 그는 “오랜 꿈을 이뤘다”며 기뻐했다.

“서양인은 그들이 지니지 못한 동양의 자연주의를 신비하게 생각하고 호기심으로 바라봅니다. 그 만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요. 이를테면 일본 자

연주의 인공미와 한국 자연주의의 무위(無爲)를 구분하지 못해요. 작품을 고른 알렉산더 폰 페게작(사진 뒤) 관장도 많이 접하지 못한 한국의 자연주의에 매료된 것 같습니다.”

최 교수는 ‘비트라’가 한국 가구의 독특함에 눈뜨고 가치를 인정해준 만큼 세계 무대로 나가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1997년 파리 개인전 때 프랑스 평론가 미셸 누리자니가 한 말을 그는 지금도 기억한다. “나는 최씨 작품만큼 서정적이고

아방가르드와 전통, 무거움과 가벼움, 매끄러움과 거친 것이 공존하는 작품을 제작한 목공예가를 본 적이 없다.”

“내년에 프랑스 파리 ‘갤러리 다운타운’에서 개인전이 열립니다. 올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에 들른 영국 화상이 찾아와 전시회를 제안했구요. 해외 시장 상황이 한국 디자이너에게 아주 좋은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재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생각과 느낌을 담은 디자인을 펼쳐보겠습니다.”